'禮節과 學文의 고장 脈 이어간다'

포천유림대학 제1기 40名 수료식 가져

포천유림대학(대학장 포천향교 전교 정기용)은 8월7일 제1기생 40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희 경제농정국장과 류봉현 원로, 리효종 원로등 유림원로가 참석해 수료자들을 축하했다.

정기용 대학장은 식사에서 "유림대학의 설립취지는 지역사회를 전통 있는 예절과 학문의 고장으로 만들어 미풍양속이 지켜지는 예도의 고장으로 지켜나가는데 있다"고 밝히고 "수료생 여러분은 각자가 자기의 고장에서 전통예절을 지키며 교육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유림대학은 8월7일 제1기생 40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들 수료생들은 5월19일 입학식을 갖고 3개월 12주 36시간동안 포천의 선비정신, 포천의 역사와 인물, 석전 및 향례, 현대예절과 4례, 한시강좌, 논어강독의 교과과정을 이수했다.

포천향교는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사회단체 간부 등으로 매년 1~2회씩 유림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천유림대학 제1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만기 ▶임하영 ▶조병현 ▶채규헌 ▶이완순 ▶조국형 ▶이진영 ▶김제한 ▶김영진 ▶김용순 ▶임기재 ▶이종열 ▶남기영 ▶이충묵 ▶양재구 ▶정관진(이상 포천향교 장의 및 감사) ▶이성호 ▶채희영 ▶최왕식 ▶신동하 ▶최영진 ▶허영범 ▶이재옥(이상 유도회임원) ▶이상범 ▶이순휘 ▶서경석 ▶정동식 ▶유상렬 ▶정찬백 ▶이영창 ▶서명원 ▶김규중 ▶송영선 ▶홍광표(이상 읍면동 유도회 지회장) ▶유재승 ▶이갑형 ▶이양순 ▶권혁윤 ▶최동부 ▶홍창기(이상 포천유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트밸리 예술창작벨트 시범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예술창작벨트 조성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시·군은 이후 문광부가 실시하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브리핑, 질의응답을 거쳐 오는 9월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문광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포천시는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 2차 현장 심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아트밸리가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는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포천시가 국내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부각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뮤지컬 이야기 #57

위대한 파트너쉽의 마지막 명작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나는 도일스 타운(Doylestown)에 내려갈 거야. 그곳 농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어."

평온하고 조용한 소리로 그는 말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죽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처럼 들린다.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준비를 다 해놓은 세계적인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는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에게 그렇게 말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시골 농장에서 맞이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무용, 심지어 TV 등 모든 예술분야에서 상대배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대배역에 따라 자신의 역할이 부각될 수도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건 파트너의 전설들이 있다. 〈X-파일〉의 데이빗 듀코브니와 질리안 앤더슨, 발레의 전설 루돌프 누레예프와 마곳 폰테인, 한국 만담의 효시 장소팔과 고춘자, 〈전원일기〉의 최불암과 김혜자, 그리고 뮤지컬의 전설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 이들의 유명한 파트너쉽은 오늘날 많은 배우 및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뮤지컬계에 또 하나의 전설적인 파트너쉽이 있었다.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이 두 사람은 1943년 뮤지컬 〈오클라호마〉를 통해 작곡가와 작사가로 첫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1959년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르기 까지 16년 동안이나 파트너쉽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뮤지컬 역사에 남을 수많은 명작들을 발표했고 1960년 오스카가 위암으로 죽을 때 까지 이들은 뮤지컬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51년에 초연된 여섯 번째 합작품 〈왕과 나(The King and I)〉의 성공이후 두 사람의 콤비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이제 아무도 더 이상 특별한 명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8년 만에 두 사람 생애의 마지막 명작인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이 발표되었다. 발표당시 평단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일반 관객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고 특히 영화의 개봉과 더불어 대중적인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 했다.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을 수상하며 브로드웨이에서 3년 넘게 공연했으며 1,443회라는 공연기록을 세웠다.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 음반은 발매되자마자 3백만장이 넘게 판매되어 흥행뮤지컬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2년 후 영국 웨스트 엔드(West End)로 건너가 더욱 폭발적인 흥행기록을 세웠는데 5년이 넘는 장기공연으로 2,385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초연된 9개월 후, 오스카가 암으로 죽자 더 이상 두 사람의 합작은 볼 수 없게 되었다. 〈파이프 드림(Pipe Dream, 1955)〉이라는 뮤지컬을 준비하며 로저스도 암으로 아래턱 절반 가까이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의 결과가 좋아서 로저스는 1979년까지 삶을 영위했는데 오스카는 〈사운드 오브 뮤직〉 리허설 초기에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에 들어갔다. 보스턴에서 가진 시연회 기간 중에는 극중 7남매의 아버지 역할인 트랩 대령의 솔로 노래가 필요해 아픈 몸을 이끌고 가사를 완성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에델바이스(Edelweiss)'였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매일 아침 날 반겨주네. 작고 하얗고 깨끗하고 밝은, 나를 만나 행복해 보이는 구나. 눈송이 만발함이 언제나 당신을 활짝 피고 영원히 자라나길,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내 고향 영원히 축복해주길.'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 히트를 기록했는데 항상 밝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오스카의 마지막 노랫말이 되고 말았다. 리처드 로저스의 자서전(Musical Stages)을 보면 이들 위대한 작곡가와 작사가의 마지막 대화가 가슴을 적셔온다. 오스카는 어느 날 아침 주치의로부터 자신의 병이 더욱 악화되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점심 때 리처드를 만나 점심을 먹는다. 마치 자신의 유언을 전달하려는 듯 오스카는 주치의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리처드에게 담담하게 이야기 한다. 첫째, 재입원을 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것. 둘째, 워싱턴으로 가서 암 치료를 하는 것. 이들 모두 고통스럽고 암을 단순히 억제시키는 일시적인 방법이었다. 오스카는 리처드에게 평온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도일스 타운(Doylestown)에 내려갈 거야. 그곳 농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어."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고 위대한 뮤지컬 파트너쉽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오스카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미국 브로드웨이의 타임스퀘어와 영국 웨스트 엔드에서는 그날 모든 전등을 3분간 소등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이들이 합작한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은 작품이었다. 평단의 평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뮤지컬은 초반에 막을 내려야만 한다. 그렇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은 신문평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오늘날 특히 영화는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혹은 케이블에서 관람하고 있다.

(자세한 뮤지컬의 내용은 1960년대 뮤지컬-할리우드 에서 다시 다룰 예정임)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3)

'굴피 나무' 이야기

(PLATYCARYASTROBILACEA)

호도과의 낙엽교목인데 활엽수로 잎은 우상 복엽이고 작은 잎은 피침형이며 잎가에 날카로운 거치가 있다.

과실은 견과이고 9~10월에 익고 6~7월에 꽃이 핀다. 산기슭 중턱에 난다.

양지에 나며 껍질은 '어구(漁具)'에 이용한다. 우리나라경기도 이남, 일본대만,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내 고향 포천에서 식재 하기 좋은 나무라는 얘기가 된다.

잎은 피부의 '급성 화농증' 머리의 '부스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열매는 날개를 가졌는데 '진통' '소종' '거풍' 등의 효능이 있어 '근육통' '복통' '치통' '습진종창'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꽃은 노란빛을 띤 녹색 꽃이 피는데 수꽃은 5~8cm 암꽃, 이삭은 2~4cm다. 성숙한 암꽃 이삭은 솔방울 모양이다.

'굴피나무'는 느티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막강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임금님의 시신을 감싸는 목관으로 선택되고 중요한 국방의 일익(창, 목책등)을 담당했는가 하면 당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의 몸체'가 되었다.

놀라운 효능은 매우 다양하다.

링클케어에 필요한 '주름 및 노화방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엘라직산' '플라보노이드' '우솔릭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유해 산소 차단' 역할을 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는 '굴피나무' 추출물은 '노화방지'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굴피나무' 추출물은 '항염작용'으로 과다 염증 때문에 생성되는 단백질과 지질분해 효소들을 억제하여 그로써 손상되는 세포들을 보호한다.

그리하여 '피부노화'를 억제하고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뿐이 아니다. '굴피나무' 껍질은 보온성(保溫性)이 매우 뛰어나 지붕에 덮어두면 한겨울 추위를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약재는 수 천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약재로서의 효능을 인정받아 이용되었으며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한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너와지붕'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나무는 이 세상에 뿌리내리고 머물다 돌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고스란히 주고 돌아간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굴피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으뜸나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내 고향 '백운계곡'은 조선시대 궁궐목재 보호림으로 유명하다.

고로쇠나무 산지로도 유명하다. '굴참나무'를 소나무 제선충으로 벌목한 곳에다 심으면 어떨까? 요즈음 자작나무를 심어 고로쇠 수액과 같이 추출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 권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굴참나무 같은 으뜸나무를 심는 수익사업은 어떨까? 다 함께 포천의 연구과제로 연구해보자.

韓國의 선비정신 · 110

돈을 쓰지 못해 걱정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이병상은 용모가 단아하고 성품이 맑으며 생활이 검소했다. 그가 평안감사로 있을 때 나라에서 받은 녹봉을 가난한 사람이나 친척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집 앞에는 늘 가난한 선비들과 걸인들이 모여들었다. 그 집의 문지기는 날마다 때를 맞춰 대문을 연 다음 밖에 대고 소리쳤다.

"찾아 온 사람들은 모두 들어오시오!"

대문이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찾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흘을 머물게 하고, 떠날 때는 스무 냥을 주어 보냈다.

하루는 공주에 사는 선비 유진휘(柳鎭輝)가 먼길을 떠났다가 평양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평양의 여관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병상은 그를 불러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때 여관에는 목천(木川)에 사는 한 선비가 유진휘와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박천(博川) 고을의 원님을 만나러 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길이라 무척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는 유진휘가 평양감사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유진휘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노자가 다 떨어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형편이오. 본래 나는 평양감사를 알지 못하지만 함께 가서 사정해봅시다."

그러자 유진휘가 흔쾌히 대답했다.

"평양감사가 우리 같은 선비 따위에게 무슨 대접을 해 주겠소. 노자나 몇 푼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관아를 찾아갔다. 그러자 관아의 하인들이 그들을 맞아 정중히 대접하였다. 또 관아의 하인들이 여관까지 찾아와 주인에게 술과 고기를 주며 말했다.

"이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잘 대접하시오."

사흘 뒤 목천의 선비가 유진휘에게 말했다.

"감사께서 돈 스무 냥과 함께 여러 가지 물품을 주십디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도 되겠소."

이병상은 평양감영의 책방 옆에 초가 수십 칸을 지어놓은 다음, 수저 수백 벌을 마련해 놓고 가난한 선비들이 마음껏 묵도록 했다. 그러자 이병상의 자제들이 이를 불만스럽게 여겨 아버지에게 항변했다.

"관아가 온통 손님들로 북적대니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구나 아버님께서는 사비를 들여 손님들을 대접하니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병상이 웃으며 말했다.

"평양감사의 녹봉이 한 해 24만 전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쓰듯이 돈을 쓴다 해도 1년에 쓰는 돈은 2만 전이 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을 쓰지 못해 걱정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게 재산이 많아지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나는 명예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다. 그러니 낯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낫다."

그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 매번 식사를 할 때는 여러 아들을 불러 함께 먹었는데 밥상에는 접시 하나에 멸치를 담고, 된장찌개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늘 자식에게 말했다.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기가 번거롭다. 또한 갖가지 음식을 차린다해도 몸에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음식을 달게 먹도록 해라."

그는 나이 70이 넘어 대제학으로 있었는데 집에서 베 이불을 덮고, 차림새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고 한다.

이병상(李秉常)

1676년(숙종 2)~1748년(영조 24).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자는 여오(汝五). 호는 삼산(三山)이다. 1705년(숙종 31) 생원시에 합격하고, 1710년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좌의정 이관명(李觀命)의 천거로 관계에 진출하였다. 이후 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 등을 지내며 소론에 맞서다가 신임사화 때 파직되기도 하였다. 1725년(영조 1) 대제학을 역임하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었으나 탕평책 반대의 소를 올려 파직되었다.

그 후 대사헌·형조판서·광주목사(光州牧使)를 역임하고, 1742년 공조판서를 지냈다. 성품이 활달하고 지조가 있었으나 당론에 가담하였고, 몸가짐이 검소하여 고관에 이르렀어도 가난한 선비같이 생활하였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예/술/칼/럼

시작(詩作)의 에너지

대개 음식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이 있듯이 언어에도 다양한 맛깔이 있다. 음식을 다루는 솜씨를 두고 조리 또는 요리라 한다. 문장도 손끝으로 빚어내는 글 솜씨라 한다. 요리에서는 간을 잘 맞춰야만 그 맛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시작(詩作)에서도 간을 잘 내야만 작품의 깊은 맛을 우려 낼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은 양념으로 맛을 가감하지마는 글(詩)은 문법적 기능과 수사법으로 의미를 달리한다. 그러나 좋은 품질의 작품은 음식물과 달라서 깨진 그릇에도 고이며 뜨거운 그릇에서도 차갑고 얼음 속에서도 불이 붙는 대단한 마력과 매혹적인 힘이 있다. 그럼에도 언어예술은 상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밥상에 오르기는 한다.

문학작품의 유통과 마케팅은 상업적 시장기능에 맡겨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 팽개쳐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시작(詩作)은 인간의 언어로 요리하는 살아 있는 등 푸른 생물과 같다. 시작(詩作)의 원동력은 자연과 인간에서 기인한다. 항상 언어속에는 창과 방패가 있으며 순리와 거역이 따른다. 그러므로 작가와 시인은 칼과 펜으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순환관계에서 사생되는 사유적 에너지다. 언어의 예술성에는 반드시 디자인과 모자이크가 있다. 언어도 돌의 생김새와 같아서 각양각색이다. 그처럼 어떤 낱말 하나도 버리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나름대로 적재적소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벽돌모양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소리나는 물감이다. 이때 모든 예술은 닮은꼴로 품앗이하게 된다. 물 속에는 고기가 살고, 생각 속에는 언어가 산다. 마치 글(말) 속에는 사람과 산새와 벌레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작은 우주다. 시(언어)의 표정에는 웃음과 미소가 가득해야 하며, 사색과 산책이 동행해야만 한다. 이것을 두고 상상의 사계절이라 한다. 시를 처음 대할 때 느끼는 이미지는 사람으로 말하면 첫 인상이며 살결이자 옷차림이 된다. 그것이 시가 보내는 작은 메시지며 큰 에너지다. 이와 같이 시작(詩作)의 잘 영근 에너지는 모든 사물(事物)과의 친구관계가 되는 것이며 때로는 건강한 비판적 시안(詩眼)을 가지는 것일게다.

바로 이것을 두고 문장의 그물망 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생각 속의 언어를 어항에 잡아넣고 금붕어를 키우듯이 기르면 된다. 산소를 공급하고 먹이를 주고 언어를 관찰하며 놀아주면 된다. 그러면 언어도 움직일 것이다. 분명 어떤 말을 걸어 올 것이다. 그때 우선 명사와 동사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작(詩作)의 무대에 자신의 생각대로 연기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시작(詩作)의 에너지는 인간의 유일한 병을 고친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초대 漢詩

大韓民國樹立六十年(대한민국수립육십년)

嘉隱 崔宗圭
포천명유회 회장

大韓樹立瑞吾東(대한수립서오동)本固邦寧六十同(본고방령육십동)

대한민국이 수립하니 이 나라에 서광이 비치고, 근본이 굳고 나라가 평안하게 육십년을 살아왔네.

地占檀紀三千里(지점단기삼천리)旗飜太極萬家風(기번태극만가풍)

단군기원 삼천리를 땅으로 보존하고, 만가에 바람부니 태극기가 휘날리네.

願祈議政無爭鬪(원기의정무쟁투)待望治民有義中(대망치민유의중)

기원하나니 의정 단상에선 다투지들 말고, 바라건데 백성을 다스리는데는 의리가 있어야 하나니.

經濟成長安堵足(경제성장안도족)遠來近悅樂何窮(원래근열낙하궁)

경제가 성장하니 살림이 넉넉하고, 멀리서 와서 가까이서 즐기니 즐거움이 어찌 궁하리요.